

한국인의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를 중심으로*

서 예 지¹⁾ 안 정 민²⁾ 정 태 연[†]

본 연구는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그리고 사회비교 기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개인들이 사용하는 사회비교의 기준이 어떻게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FGI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성인남녀 20대~60대까지 연령별 5개의 초점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집단별 7명씩 총 3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후 주제별로 자료를 코딩하여 주제를 추출한 후 주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결감은 타인의 무조건적인 선의, 온 국민이 하나 됨을 느끼는 사건, 사회보장 제도, 투표와 같은 국민의 권리 행사를 경험할 때 나타났다. 둘째, 사람들의 일상 속 주요 사회정체성은 물질적 자기, 사회적 자기, 심리적 자기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며,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은 국제적 맥락에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을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국제사회 속 외국인과 차별화되는 정체성, 낯선 환경 속 이방인으로서 정체성, 국위선양 사건 및 스포츠 경기를 통해 활성화되는 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비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상향 비교 시에는 불안과 좌절감을, 하향 비교 시에는 상대적 안도감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감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감이 온 국민이 하나됨을 느끼는 특별한 사건이나 선거와 같은 국민 권리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심리·사회·문화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을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세대별로 주요 사회정체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세대별 정체성 강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SNS의 발달로 인해 상향 사회비교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균형 잡힌 사회 인식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해 하향 비교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한국인정체성, 사회비교, 사회적 안녕감

* 이 연구는 2017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서예지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수료

2)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수료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69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47

E-mail: tjung@ca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2023년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객관적인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OECD, 2023). 또한 2022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23). 이는 단순히 경제적 풍요로움이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인의 안녕감은 경제적 지표나 객관적 삶의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개인의 사회적 연결감과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Magu, 2015). 디지털화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개인이 더 쉽게 소외감과 불안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Derviş & Chandy, 2016; Melita et al., 2021; Teepe et al., 2023). 특히 디지털화는 과도한 연결성을 초래하면서 개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고(Teepe et al., 2023),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켜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한다. 동시에, 사회적 갈등은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며, 이는 개인이 소속감을 잃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Derviş & Chandy, 2016).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은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이 소속된 사회적 관계와 기관,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Keys, 1998). 사회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이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이다(Diener et al., 1999; Ryff & Singer, 2008).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안녕감의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주거와 소득, 고용과 같은 사회적 기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안녕감을 높이는 심리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사회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Genç & Arslan, 2021). 기존 심리학 연구들은 주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에 집중해 왔으며(Diener, 1984; Ryff, 1989), 개인의 내면적 감정과 자기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나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안녕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사회적 안녕감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연결성과 유대감이 개인의 전반적인 안녕감에 필수적이라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의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냈다(Cicognani et al., 2008; Joshanloo et al., 2006).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안녕감을 설명할 때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의 심리적, 대인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이 우울증, 불안, 신체적 건강 문제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Arslan et al., 2020).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사회적 지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적 연결감이 사회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Joshani et al., 2006),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참여와 친사회적 행동이 사회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Cicognani et al., 2008).

특히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이종한, 2000; 정태연,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연결감이나 한국인정체성이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비교의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는 방식은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ang et al., 2020).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회적 안녕감을 탐구하는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연구 주제이며, 사회적 연결감, 정체성, 사회비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그리고 사회비교가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을 제안하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심리사회적 접근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 1) 한국인들이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 2) 한국인들의 주요 사회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 3)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안녕감은 어떠한가, 이를 평가하는 사회비교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사회적 안녕감의 다차원적 개념과 주요 영향 요인: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의 역할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을 개인이 사회적 관계의 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효과와 타인의 반응 방식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한다(Keyes, 1998; Keyes et al., 2020). 이러한 정의에서는 개인과 타인, 사회 기관 및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그에 반해 사회학에서는 더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안녕감을 개인이나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사회적 안녕감의 결핍은 폭력, 학업 중단, 유아 사망률 증가, 노동 착취, 사회적 불평등, 빈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열, 박상희, 2017). 이러한 시각에서는 환경과 사회생태계가 개인의 안녕감을 위해 다차원적인 보호, 지원, 기회 및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살펴보

왔듯 사회적 안녕감은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한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다.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개인이 사회를 경험하고 평가하는 방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타인이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해로 구성된다. 사회적 안녕감은 다양한 잠재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도 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명확한 합의는 없지만, 여러 정의를 수용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속감이나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와 같은 특정 차원을 사용해 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했다(Oyanedel & Páez,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안녕감을 개인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사회 구조, 제도 및 사회 구성원)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인식으로 정의한다. 이에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사회적 연결감, 사회정체성, 사회비교를 선정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연결감은 타인과의 건설적인 대인관계 및 집단 또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의미하며(Lee & Robbins, 1998; Malone et al., 2012; Stanley et al., 2019), 개인의 전반적인 안녕감과 행복, 사회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erkman et al., 2000; Cohen, 2004; Holt-Lunstad et al., 2010; House et al., 1988; Putman, 2000).

둘째,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을 특정한 사회적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 소속감을 통해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그 소속

감에 부여된 가치와 감정적 의미를 통해 형성되는 자기 개념의 한 부분으로 정의된다(Tajfel, 1979).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가족, 계층, 공동체, 국가 등 지리적·역사적 응집체로 구성된 집단들에 속해 있으며, 사회정체성은 이러한 집단들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이동수 외, 2007). 이러한 소속감은 사회적 안녕감, 즉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성과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Abrams & Hogg, 1990; Ellemers et al., 1999; Haslam et al., 2009).

셋째, 자기 능력과 의견 등을 타인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사회비교(Fetinger, 1954)는 자기 평가, 동기 부여, 사회적 관계 형성, 기준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인 비교와 적절한 자기 이해가 이루어질 때, 사회비교는 사회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Buunk & Gibbons, 2007; Suls et al., 2002). 각 연구 변인이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사회적 연결감의 중요성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연결감은 심리적 및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Lee & Robbins, 1998; Yuen et al., 2023; O'Rourke & Sidani, 2017). 사회적 고립과 고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의 결여는 신체적 건강과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Haslam et al., 2018; Holt-Lunstad et al., 2010). 사회적 연결이 부족할 경우, 현재 우울감과 강력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미래의 우울증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 사회적으로 잘 연결된 개인들은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고(Davidson & Cotter, 1991), 더 적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etty et al., 1996). 또한, 사회적 연결감은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자아 존중감과는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Robbins, 1995).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개인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주 대면하며, 사회적 기관과 빈번하게 교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rkman et al., 2000). 개인과 사회적 조직이나 기관 간의 연결감 또한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감에 도움이 되며, 이는 특히 학교나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결감이 청소년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Kaminski et al., 2010; Eisenberg & Resnick, 2006). 더 나아가,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사람들은 투표 및 이웃 행사에 참여하는 등 바람직한 사회적 활동에 더 자주 참여한다(Brodsky et al., 1999). 사회적 연결감은 사회적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며, 이는 그 자체로도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Hopkins et al., 2016). 특히, 트라우마나 재난 후 스트레스 회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감은 불안, 우울 및 관련 걱정 근심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Humphrey et al., 2022).

사회적 연결감과 안녕감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감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감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반대로 낮은 사회적 연결감은 우울과 불안,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확

인되었다(박경순 외, 2020). 즉 사회적 연결감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특히 노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적 연결감이 개인의 건강, 안녕,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정체성의 중요성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체성은 개인이 직면하는 도전을 더 깊게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수용, 자기 가치 인식, 소속감, 사회적 연결, 구체적 도움, 자원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Branscombe et al., 1999; Cohen & Syme, 1985; Postmes & Branscombe, 2002). 집단에 속한 개인은 우울증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소속감은 우울증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Cruwys et al., 2015). 사회정체성은 심리적 자원으로 간주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을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Jetten et al., 2014). 강화된 사회정체성은 우울증 감소와 연관되어 있으며(Sani et al., 2015), 대립, 질병과 같은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보호 역할을 한다(Haslam & Reicher, 2006; Haslam et al., 2009). 또한,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회 집단으로부터 받는 심리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취약성을 감소시킨다(Haslam et al., 2009). 사회정체성은 또한 개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고, 이는 사회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Gray & Stevenson,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지역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른 마을만들기 참여가 지역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 결과, 마을만들기 참여, 주민 주도적 참여, 협력적 참여, 지역공동체 의식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아, 2016). 국내 간호사들의 사회정체성과 스트레스, 우울,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정체성은 스트레스,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관적 안녕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이수지, 2021).

비록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정체성이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치 있는 집단에 속하길 원하며, 그러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느낀다(Tajfel & Turner, 1979). 하지만, 일부 사회적 집단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저평가를 받을 수 있다(Goffman, 1964; Link & Phelan, 2001). 예를 들어, 유학생들이 사회적 차별과 거부를 겪으면서 안녕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osenthal et al., 2008). 또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문화 충격 경험은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나, 가족의 지지나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이 높을 경우, 재문화 충격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이승민, 양은주, 2015).

그렇다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한국인의 사회정체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양한 세대와 문화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가지 방향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다. 농경 세대에서

정보 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는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따르고 있으며,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평등주의와 이기주의와 같은 상반된 가치들이 때로는 충돌하는 형태로 공존하고 있다(이명진, 2005).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정체성은 개인의 안녕감을 해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정체성은 안녕감을 향상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정체성이 현재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정체성 중 한국인의 정체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사회비교의 중요성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비교는 자기 능력과 의견 등을 타인과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Festinger, 1954), 상향비교와 하향비교, 유사비교가 있다. 상향비교는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 신체적 불만족, 섭식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Carlson Jones, 2004; Clay et al., 2005; Smolak & Stein, 2006). 또한, 과도한 상향비교는 우울증, 불안 증상(Irons & Gilbert, 2005; Nesi & Prinstein, 2015), 물질주의(Chan & Prendergast, 2007)와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의미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Brassai et al., 2013).

특히, SNS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이전보다 쉽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다. 자주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으며(Kalpidou et al., 2011; Vogel et al., 2015),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Feinstein et al., 2013; Haferkamp & Krämer, 2011; Vogel et al., 2015).

이러한 상황은 정신건강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Jang et al., 2016).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SNS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상향비교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격리 전과 비교했을 때 외로움, 우울, 스트레스, 불안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Ruggieri et al., 2021). 이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상향비교를 통해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사회적 고립이 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하향비교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하향 비교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Wills, 1981; Buunk & Gibbons, 1997). 그러나 하향비교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기대와는 달리, SNS에서의 하향 비교도 부정적 감정, 우울 증상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teers et al., 2014; Wood et al., 1994). 상향비교든 하향비교든, SNS에서의 사회적 비교는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고리는 부적응적인 반응을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einstein et al., 2013).

아울러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사회비교와 사회비교 동기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자기 고양을 위한 사회비교 동기는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면에 자기향상을 위한 사회비교 동기는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삶의 기대와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서경현, 이경순, 2010).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향 비교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하향 비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소현 외, 2009). 또한, 개인주의 문화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사회비교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으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아동기부터 사회비교가 강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White & Lehman, 2005; 한덕웅, 장은영, 2003b).

요약하자면, 사회비교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로, 각 개인의 사회비교 성향은 불확실성, 새로운 경험, 변화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회비교에서는 개인의 동기가 중요하며, 동일한 비교를 하더라도 개인의 자존감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회계층이 사람들의 사회비교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을 경험하는 조건과 사회적 안녕감으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판단의 기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5개의 초점 집단을 구성하여 총 3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4가지로(타인의 조건 없는 선의, 온 국민이 하나가 됨을 느끼는 사건,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 범주화할 수 있으며, 한국 사

회에서 주요 사회정체성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20대: 물질적 자기, 30~50대: 사회적 자기, 60대: 심리적 자기). 마지막으로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이 활성화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3가지로(국제사회 속 외국인과의 차별화되는 정체성, 낮은 환경 속 이방인으로서 정체성, 국위선양 사건 및 스포츠 경기를 통해 활성화되는 정체성) 나타났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대한민국 성인남녀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별 5개의 초점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집단별 7명씩 표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반영하고 풍부한 정보와 경험을 보유한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준거 기반 선정(criterion based selection)'을 토대로 '고유 표본 선정(unique sampling)' 및 '눈덩이 혹은 연쇄적 표본 선정(snowball or chain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 방식은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 번호: 1041078-20231130-HR-317) 연구의 목적, 위험도, 그리고 연구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며 진행되었다. 참가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인터뷰 진행 방법 및 질문 구성

초점 집단 인터뷰는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3개월 동안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 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2~3명씩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다. 집단별 면담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에 관한 사례로 커피 쿠폰 5,000원을 지급하였다.

FGI 질문 구성의 타당성 검증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리학 박사 2명과 박사수료생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질문 구성의 타당성은 질문 목적의 명확성, 질문의 구체성과 이해도, 중립성 유지, 흐름과 순서, 개방성,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사회적 연결감

'사회적 연결감' 개념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어,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들려준 후,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후 사회적 연결감을 느꼈을 때 정서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언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연결감을 경험했을 때 어떤 정서를 느꼈는지?'

한국인의 사회정체성

평소 중요한 본인의 정체성 및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소개하는 본인의 모습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평소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쉽게 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시: 직업, 성별, 연령층, 종교, 선호 정당, 국적, 가족, 혼인상태, 사회계층, 거주지 등>를 제시하여 정체성에 대한 사고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스스로 주요한 정체성이 여러 가지라 한 가지로 응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 중요도 순위에 따라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표 1. 유형별 초점 집단 참여자 특성

연령대	성별	거주지	결혼 여부	종교
20대	남 (4명)	서울(3명)	미혼(4명)	기독교(2명)
		경기도(1명)		불교(1명)
	여 (3명)	서울(2명)	미혼(3명)	기독교(2명)
		경기도(1명)		무교(1명)
30대	남(3명)	경기도(2명)	미혼(2명)	기독교(1명)
		경상도(1명)		기혼(1명)
	여(4명)	서울(3명)	미혼(4명)	무교(3명)
		경기도(1명)		기독교(1명)
40대	남(3명)	경기도(2명)	기혼(3명)	기독교(2명)
		서울(1명)		무교(1명)
	여(4명)	경기도(3명)	기혼(2명)	기독교(1명)
		서울(1명)		미혼(2명)
50대	남(2명)	서울(2명)	기혼(2명)	무교(1명)
				기독교(1명)
	여(5명)	서울(2명)	미혼(1명)	무교(1명)
		경기도(3명)		기혼(4명)
60대	남(3명)	서울(1명)	기혼(3명)	기독교(3명)
		경기도(2명)		
	여(4명)	서울(3명)	기혼(4명)	기독교(2명)
		경기도(1명)		

다음과 같다. ‘평소 본인에게 중요한 사회정체성은 무엇인지? ex) 직업, 성별, 종교, 선호 정당, 국적, 가족 및 혼인상태, 사회계층 등’, ‘언제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 및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 이유?’,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을 경험할 때 느끼는 정서는 무엇인지?’

사회적 안녕감 및 사회비교 기준점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사회 문제가 무엇

인지 질문을 통해 전반적인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한국 사회/한국인에 대해 긍정/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와 계기는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평가에 따른 개인이 느끼는 정서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이후 한국 사회/한국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점은 무엇이었던지도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사회 문제

는 무엇인지?’, ‘한국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부정),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의 판단 기준(사회비교의 대상)은 무엇인지?’, ‘한국사회에 대해 평가할 때 드는 감정은 무엇인지?’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Giorgi(1985/2004)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4단계에 따라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FGI(집단 심층 인터뷰)에서 수집한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전사하고, 전반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언의 정확성뿐 아니라, 말의 뉘앙스, 감정적 반응,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여 기록함으로써 자료의 풍부한 맥락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코딩(coding)을 통해 대화에서 도출된 주요 항목을 식별하고, 유사한 주제로 반복되는 표현을 묶어 중요한 주제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코딩된 자료에서 핵심 주제와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집단 내 공통된 의견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식별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제 분석에서 나타난 패턴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맞는 심리사회적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연구의 결론을 구성하였다.

추가로, Lincoln과 Guba (1985)의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을 통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첫째, 사실적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연구자는 면담 중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자기 경험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둘째,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

해 심리학 박사 2명에게 연구 과정을 검토받아, 연구자의 해석이 객관적이고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했다. 셋째, 일관성 평가를 위해 다중 분석자 접근법을 활용하였으며, 두 명의 연구자가 자료를 독립적으로 코딩한 후 결과를 비교해 분석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Miles와 Huberman (1994)의 전략을 참고하여 편견을 배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상황을 여러 번 점검하고 다양한 자료 출처와 증거 형태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외부 검토자 3명의 최종 점검과 참여자 확인 절차를 통해 연구자의 해석이 참가자의 실제 의견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결 과

사회적 연결감

본 연구에 앞서, 인터뷰 질문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사회적 연결감 개념에 대해 다소 낯설어했으며,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회적 연결감 경험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기 전에, 사회적 연결감의 정의를 명확히 설명하여 참여자들이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FGI 결과, 사회적 연결감 개념을 이해한 후에도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사회적 연결감을 자주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연결감이 일상에서 쉽게 떠올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며, 연구에 중

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파일럿 테스트에서 나타난 사회적 연결감의 맥락들을 예시로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관련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이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하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조건 없는 선의, 온 국민이 하나 됨을 느끼는 사건, 사회보장 제도,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세대별로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조건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

‘사회적 연결감을 언제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첫 응답은 대부분 ‘경험한 적이 없다’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개념도 생소하게 느꼈으며, 연구자의 개념 소개 후에도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연결감을 못 느끼는 상황에 대해 쓸쓸함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 사회적 연결감을 못 느껴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거 같은데요?” - 20대 여성, 김OO-

“평소 잘 못 느껴요. 알바 때 친구 어머니가 챙겨 주는 거? 알바를 가는데 매니저님이 어머니뻘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 친구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니 잘해주고 그런 거 아니면 잘 못 느끼는 거 같아요.” - 20대 남성, 이OO-

“좋아하는 거라든지, 가벼운 언급이라도 서로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적당한 농담과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같은데... (쓰읍)...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의도 줌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나의 업무도 독립적인 공간에 있어서 사회 일원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말해놓고 보니 쓸쓸하네요? (웃음)” - 30대 여성, 조OO-

“(침묵) 없는 거 같은데요?” - 40대 남성, 박OO-

“(사회적 연결감을 느껴본다는) 생각은 특별하게 내가 해본 적은 없는데...” - 50대 여성, 이OO-

“평상시에 잘 못 느끼는 거 같아요.” - 60대 남성, 윤OO-

타인의 조건 없는 선의

참여자들 대부분은 타인의 조건 없는 선의를 경험했을 때 사회적 연결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것은 나와 관련이 전혀 없는 타인이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격했을 때로 나타났다. 개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로는 지갑 돌려주기, 응급상황 도움 등이 있었으며,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TV나 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한 사례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태안반도 자원봉사, 산불 민간 자원봉사, 금 모으기 운동, 응급차 비켜주기 등

국가의 위기나 어려움에 개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에 따른 정서 경험은 고마움, 감사함, 보답, 따뜻함, 소속감, 뿌듯함, 감동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배려 차원의 교통편의 시설 또는 주변 승객들의 배려를 보면 사회적 연결감이 드는 거 같아요... (생략)..... 확실히 다 같이 있어서 서로 돕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어 인류라는 유기체와 국가로서의 소속감과 뿌듯함을 이럴 때 느끼곤 하는 거 같아요.” - 20대 여성, 김OO-

은 국민이 하나 됨을 느끼는 사건

사회적 연결감 느끼는 또 다른 맥락은 은 국민이 하나 됨을 느끼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2 월드컵, 올림픽, 국제스포츠 경기와 같이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순간이었다. 평소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 느꼈으나 사람들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함께 응원할 때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하였다. 평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행동을 할 때 다른 사회 구성원과 개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 중 내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은 일체감을 경험하게 하였다. 아울러,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만 보다가 똑같이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할 때 보기도 좋고, 결국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른 감정으로 사람들은 열광, 기쁨, 즐거움, 일체감, 열정 등을 느꼈다.

표 2. 일상생활 속 사회적 연결감 경험

유형	구체적 사건	정서 경험
0) 경험 없음	없음	썩쓸함, 소외감
1) 타인의 조건 없는 선의	직접 경험: 지갑 돌려주기, 응급상황 도움 등 간접 경험: 태안반도 자원봉사, 산불 민간 자원봉사, 금 모으기 운동, 응급차 비켜주기	고마움, 감사함, 보답, 따뜻함, 소속감, 뿌듯함, 감동, 살만함
2) 은 국민이 하나 됨을 느끼는 사건	2002 월드컵 및 올림픽과 같은 국제스포츠 경기 축볼 시위	열광, 기쁨, 즐거움, 일체감, 열정 감동, 안도감, 해소감, 연대감, 소속감
3) 사회보장제도	의료/건강보험제도 코로나 관리 안전 및 치안	안도감, 안전감, 자부심, 소속감, 고마움
4)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	투표/선거/참정권	긴장, 설렘, 실망, 당연함, 불안감

“촛불 시위나 올림픽 경기에서 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소름 돋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한목소리를 낼 때 감동했어요. 일체감? 나도 이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생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일체감이랄까?”
- 30대 여성, 안OO -

사회보장 제도

참여자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제도, 코로나 관리, 우리나라의 안전 및 치안,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사회와 개인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으며,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능력을 발휘한다고 인식하는 소속감을 경험하였다. 특히나 의료혜택을 받은 경우,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한 것이 내가 힘들 때 돌아오는 구나를 느끼면서 사회적 안전망에서 국민으로서 보살핌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으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았으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함을 많이 경험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에 따른 정서 경험은 안도감, 안전감, 자부심, 소속감, 고마움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혜택을 받는 순간, 사실 나라에서 나를 책임져 주고 있고, 맨날 뭐 직장인 유리 봉투라고 하는데 보험료 내고 했지만, 이런 게 다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구나 느낄 때, 그런 사회 안전망 안에 살고 있고, 보살핌을 느끼는 건 그런 거

같아요.” - 40대 여성, 황OO -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

참여자들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투표/선거/참정권 등 국가를 위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연결감을 경험하였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투표의 순간 지역사회 커뮤니티나 더 큰 사회인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느끼며, 개인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 댓글 혹은 국민 청원을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면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는 경험을 하였다. 그에 따른 정서 경험은 긴장, 설렘, 실망, 당연함, 불안함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등과 같은 국가의 일원을 뽑을 때, 지역사회커뮤니티나 더 큰 사회인 국가에 정체성을 느끼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투표권을 갖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체감을 느끼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생각되곤 해요.”
- 20대 여성, 김OO -

“인터넷 댓글/국민 청원을 통해 사회현상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인터넷 댓글? 국민 청원? 그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말하고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때가 있다는 거, 그게 내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

고 있는 순간인 거 같아요.” -50대 여성, 정00-

사회정체성

우리는 다양한 사회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 개인의 주요 사회정체성은 일상에서 자주 활성화된다. 따라서,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사회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 (Anheier, 2020). 또한, 어떤 사회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사회적 안녕감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으로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동일시할 경우,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은 증진될 것이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정체성과 동일시하지 못하고 비주류 정체성을 지닌다면 소속감과 인정욕구의 결핍으로 사회적 안녕감이 저하될 수 있다. 일상생활 속 주요 사회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 후,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을 느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일상생활 속 주요 사회정체성

일상생활 속 주요 사회정체성을 분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illiam James (1890)의 자아 이론에서 처음 제안하고, 권석만 (1996)이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자기의 인지적 구성요소(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자기)를 활용하였다. 물질적 자기는 자기와 관련된 물질적 측면 또는 소유물로 구성된다. 신체, 의복, 집, 소유물을 통해 자기 개념을 확립하는 경우 물질적으로 자기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자기는 개인의 내적 또는 심리적인 제반 능력과 성향을 의미한다. 심리적 자기는 반성적 과정의 결과로써 자신의 성격, 지적 능력, 지식, 가치관, 인생관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기는 대인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자기의 모습,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서 사랑, 명성, 명예가 될 수 있다.

세대에 따라 일상생활 속 주요 사회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경우 물질적 자기(예: 연령)를 중심으로 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장년층의 경우 사회

표 3. 일상생활 속 주요 사회정체성

대분류	중분류	응답자 특성
1) 물질적 자기	연령	정치적 청년 이슈와 관련, 20대의 주요 사회정체성으로 활성화
2) 사회적 자기	가족	기혼자 미혼자일 때 최근 가족 구성원의 장례와 같은 사건이 발생
	직업/지위	직장인
3) 심리적 자기	가치관	20대 진로 결정 50~60대 남성으로 은퇴하거나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
	자아실현	연령에 상관없이 종교가 있을 때
	정치	30대 여성(직업 관련)/ 60대 남성
	종교	연령에 상관없이 종교를 가진 응답자

적 자기 중 특히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노년층의 경우 심리적 자기를 중심으로 가치관, 자아실현, 선호정당 등으로 주요한 사회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이 각기 다른 요소를 중심으로 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 이유는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각각 문단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물질적 자기. 물질적 자기를 주된 자신의 정체성으로 구성한 집단은 2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물질적 자기 중 ‘연령’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활성화했다. 자기 정체성에서 ‘연령’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연령층에 따라 기대하는 사회적 과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대에는 대학 입시, 30대에는 취업과 결혼 등 각 연령에서 해야만 하는 과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 ‘연령’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학업, 직업,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개인적 성취에 집중하는 시기이다(Jones & Cooke, 2021; Kiuru et al., 2020). 이러한 시기에는 자신을 정의하는 주요 요소로서 연령, 학력, 직업 등의 물질적 자기를 중심으로 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저의 정체성을 가장 잘 가장 대표하게 아무래도 연령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 특정 연령층에 좀 요구하는 태도, 행위, 성취 목표, 혹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는 사회라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 20대 남성, 최OO-

연령에 따라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구분하는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연령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범주화는 세대 간 갈등, 연령 차별과 연결되며, 각 연령대가 특정 역할이나 기대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나타난다(Gilleard, 2022).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자신의 사회정체성에서 연령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대는 MZ세대로서 다른 세대와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집단이기도 하며, 실제로 다른 세대와의 인식의 차이를 경험하다 보니 명확하게 연령에 따라 인생의 주된 관심사도 달라진다고 보았다. 특히나 아직 다른 사회 집단에 속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령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범주에 자신을 범주화하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보통 요새 이제 또 MZ세대라고, 연령층으로 또 세대를 또 많이 나누잖아요. 이게 다른 게 다 맞아도 연령층이 안 맞으면 약간 대화가 좀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 20대 남성, 박OO-

사회적 자기. 사회적 자기의 하위범주로는 가족, 직업/지위가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로 자기를 정체화한 경우는 물질적 자기와 달리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회정체성. 가족 구성원(가장, 아내, 아버지, 어머니)으로서 자기를 정체화한 경우는 30~40대 기혼자들에게서 많

이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였다. 중장년층은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나 배우자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한 사회정체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 같아요. 직업은 가정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 30대 남성, 김OO -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 30대에서 50대의 직장인들이 사회정체성에서 직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을 통해 형성된 대인관계 환경이 나의 인간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중장년층은 직장에서의 책임,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이러한 역할들이 중요한 사회적 자아로 자리 잡게 된다. 둘째, 직업/직장은 개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하며,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사회 범주보다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거나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때 주요 사회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 직업, 일상적인 사고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책임이라든지 역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밖에서도 역할 여러 가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이 제게 중요한 정체성이예요.” - 30대 여성, 조OO -

심리적 자기. 심리적 자기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가치관, 자아실현, 선호하는 정당, 종교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로 사회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는 종교를 제외하고 주로 노년층에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노년층이 발달적 측면에서 신체나 직업, 대인관계와 같이 물리적 자기를 구성하거나 사회적 자기를 구성하는 영역에서 감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속성의 자기 구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일 수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 기능은 점차 약화하고, 만성적인 질병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신체적 자아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대신에 심리적 자아에 집중하게 만든다. 아울러 은퇴 후 직업적 역할의 상실은 사회적 자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년층은 심리적 자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내가 가진 욕구,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좋아하는 일 생각하는 거, 그걸 실현하는 일이 정체성을 유지해 준다고 생각해요.” - 60대, 여성 윤OO -

종교를 주요 사회정체성으로 인식한 경우는 종교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위에서 차이가 존재하긴 하였으나 종교가 주요 사회정체성이라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혼이면 가족과 직업보다도 종교를 통한 사회정체성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혼이면 가족·직업 이후에 종교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종교적, 나의 가치관, 생각, 결정하는 것들의 기준이 종교적 색깔이 커서, 그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 이에 대해 시간을 많이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 거기에 나의 행동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네요.” -30대 여성, 노00-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을 느끼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장년, 노년층보다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청년층들은 한국에서 외국인과 교류하며 그들과 다른 자기 모습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을 깨달았다.

반면, 중장년층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거나 해외 출장과 여행이 잦은 경우, 낯선 외국 환경에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활성화했다. 이외에는 거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에서는 국내에서 외국인과 교류 경험이나 해외 경험이 많지 않아 그로 인한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을 느끼기보다는 국위선양 사건이나 국제스포츠 경기로 인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에서 외국인과의 차별화되는 나의 정체성.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을 갖는 경우는 젊은 층인 20대와 해외 거주 경험이 있거나 업무상 외국인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30~40대 직장인들에게서 나타났다. 이전 세대와 달리 20대들은 국제화가 활발해지면서 교내외에서 외국인을 접하고 교류를 갖는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외국인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결국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과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이 경험하는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에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나 자신’을 구성하고 ‘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는 국내에서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사회적으로 외국인들과 나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내 생각과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문화적 차이, 즉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코리안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표 4.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

분류	한국인정체성 경험의 사회문화적 맥락
1) 국제사회 속 외국인과의 차별화되는 정체성	국제사회로 인해 외국인과 소통하고 함께 일할 기회가 많은 경우 외국인과 직접적인 만남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외국과 한국 사회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경우
2) 낯선 환경 속 이방인으로서 정체성	해외 거주나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
3) 국위선양 사건 및 스포츠 경기를 통해 활성화되는 정체성	평소 일상에서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 국위선양 사건 및 국제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느낌

건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많이 느끼지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과 교류할 때 사고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다고 해야 하나?” - 20대 여성 김OO -

낮선 환경에서의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이방인으로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겪는 불편함을 느꼈다. 대조적으로 그런 이유로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으로 인해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만 살 때는 국민으로서 누리던 혜택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해외 거주나 여행 경험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이 주요 사회정체성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국 사회 밖에 있을 때, 내가 이 사람들과 다르구나, 외집단이거나, 한국인이라는 집단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결국 나의 내집단이었다는 가장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 살 때, 영국 병원을 가야 하는데, 한국에서라면 병원에 전화하고 질차를 밟는 게 어색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외집단에 있을 때는 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 30대 남성, 홍OO -

국위선양 사건 및 스포츠 경기를 통해 활성화되는 정체성. 해외 거주 경험이나 외국인과의 교류가 많지 않으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은 거의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굳이 의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평소에는 활성화되지 않던 한국인

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이 활성화되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국가 간 스포츠 경기나 국위선양이 언급되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자긍심 넘치는 영상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 때, 어쩔 수 없이 한국인임을 실감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스포츠나 국위선양 이슈가 있으면 느끼는 거 같아요. 해외와의 접점이 전혀 없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굳이 의식시켜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럴 때는 오히려 나는 서울에 사는 사람 이런 걸 더 신경 쓰는 거 같아요.” - 40대 남성, 한OO -

“어쨌든 국뽕 콘텐츠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나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라고 느껴요. 나는 솔직히 어렸을 때는 국가주의도 아닌 거 같고 애국주의자도 아닌 거 같았는데 역시였더라고요. 국뽕 콘텐츠를 보면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 30대 여성 유OO -

사회적 안녕감 및 사회비교 기준점

사회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사회적 집단의 특성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Oyanedel & Pérez, 2020),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을 한국 사회인식으로 측정하고 조사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도 사회적 안녕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기에, 더 친숙한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 혹은 생각'이라는 용어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 평소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사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먼저 한국사회에 대한 주요 사회 문제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사회 문제는 '갈등'과 '저출산'으로 수렴되었다. 갈등에 대한 이슈는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소득 갈등 등 다양한 이슈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저출산 이슈가 결혼과 출산이라는 발달과업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30~40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20대와 60대에서 사회적 문제로 다뤄졌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이 본인들의 사회적 과업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는 사회적 문제로 여기지만, 출산과 양육이 본인들의 과업으로 여겨지는 경우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주요 사회 문제로 언급되지 않았다(표 5 참조).

이러한 주요 사회 문제를 가진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자 동일한 사회 문제를 언급하였어도 사회비교 기준이 무엇이나에 따라 한국 사회 인식이 달라졌다. 먼저 한국 사회 인식은 긍정과 부정 그리고 중립적으로

나타났다. 각 인식에서 비교 기준점을 살펴보면 상향비교, 하향비교, 유사비교가 사용되었다. 부정적으로 한국 사회를 인식하는 경우 상향비교나 유사비교를 사용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한국 사회를 인식하는 경우 하향비교를 사용하였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인식하면 유사비교를 하였다. 사회비교에는 세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사회에 대해 인식 여부(긍/부정)에 따라 사회비교의 기준이 달라졌다.

하향비교: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IT 강국, 코로나 및 위기 상황 대처 능력, 경제적 성장, 인권 및 치안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주로 과거 한국 사회의 상황들과 현재 한국 사회 상황들을 비교하였다.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국 사회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희망, 의욕, 자긍심, 안도감, 자부심, 행복감, 역동감과 기쁨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다.

표 5.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 인식

주요 사회 문제	세대별 사회 문제 인식 특징	
갈등	세대	
	성별	모든 세대가 느끼는 사회 문제 '사회적 갈등'
	지역	
소득/빈부격차	중장년층(40대~50대)에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저출산	사회적 과업으로 임신과 출산이 부여되지 않는 20대와 60대 세대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두드러짐	

표 6. 사회적 안녕감의 비교 기준점

사회인식	사회비교 유형	사회비교 대상	비교 영역	정서 경험
긍정적	하향	과거 한국 사회 · 개발도상국 ex) 북한, 아프리카, 베트남	민주주의/ IT 코로나 및 위기 상황	희망 의욕 자부심 자긍심
		선진국이지만 비교 영역에서 우리나라보다 못한 경우 ex) 일본, 미국, 유럽	대처 능력 경제적 성장 인권 및 치안	안도감 행복감 역동감 기쁨
부정적	상향	선진국 ex) 북유럽, 캐나다, 독일	민주주의 자유로운 언론 국민성 경제적 성장 복지제도 경쟁적인 사회 구조	답답함 안타까움 긴장감 걱정
		기타	과거와 다르지 않은 현재	지방차별 정치
중립적	유사	인터넷으로 각국 비교	전반적인 사회 모습	-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는 거 같아서, 뭔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40대 남자, 한 OO -

상향비교: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 사회에 부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는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가 표면적으로 이전보다 많이 발전하였으나 그 안에서 아직 발전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자유로운 언론, 국민성, 복지제도, 경쟁적인 사회 구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여유 없는 사회 분위기, 상호 존중이 없는 무한 경쟁주의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세대 갈등

및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한국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답답함, 안타까움, 긴장감, 걱정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상향비교 시 비교의 기준점은 북유럽, 캐나다, 독일 등 비교 영역에서 한국에 비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이었다.

“옛날에 비해 경험할 수 없던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훨씬 여유도 없고, 사람들이 경쟁의 굴레 아래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걱정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 존중이 없다고 생각하는 면이 많아서, 나아질 수 있을까? 점점 더 심해지진 않을까? 생각해요.” - 40대 여성, 황OO -

유사비교: 한국 사회에 대한 중립적 인식

한국 사회에 대해 긍·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중립적인 인식을 한 경우에는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 모습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장점으로는 IT 강국, 빠른 경제 성장 등을 언급하였으며, 단점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은 한국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 이뤄진 공동체인 이상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이때 비교 기준은 유사 비교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이전보다 손쉽게 각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 외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유사 비교 시에는 다소 담담하고 차분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전했으며, 특별한 정서적 경험을 보고하지 않았다.

“사회 시스템 자체만 보면 결국은 아직도 되게 덜 민주화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고 시스템적으로 주먹구구식의 그런 측면이 시스템적으로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국 사회의 한계라기 보다는 그냥 다른 사회를 봐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 40대 여성, 전OO-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감과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을 경험하는 구체적 맥락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연결감을 언제 느끼는지를 탐색하였으며, 주로 인식하는 사회정체성이 무엇이며, 언제 한국

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을 경험하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사회적 안녕감으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사회비교 기준점을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하는 경우는 응급상황 도움, 산불 민간 자원봉사 등 타인의 조건 없는 선의, 촛불 시위와 월드컵 같은 온 국민이 하나 됨을 느끼는 사건, 건강보험제도, 코로나 관리, 안전 및 치안 등 사회보장 제도, 투표와 같은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나타났다.

둘째, 사람들이 일상 속 주요 정체성은 물질적 자기, 사회적 자기, 심리적 자기 차원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 경우는 20대가 많았으며, 다양한 물질적 자기 중 ‘연령’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자기의 하위범주는 가족, 직업/지위가 나타났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아실현, 개인의 가치관, 선호 정당, 종교와 같이 심리적 자기를 주요 정체성으로 인식한 경우는 주로 60대에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50~60대 은퇴한 경우, 이러한 심리적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을 활성화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주요 사회정체성으로 한국인정체성을 느끼는 경우는 한국에서 외국인과의 교류가 많거나(외국 유학생과의 교류 또는 외국계 회사 근무 등), 여행과 유학 등 낯선 환경에서 이방인으로서 한국인정체성을 느끼는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위선양 사건 및 스포츠 경기로 인해 우리 모두 한국인이라는 단합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넷째, 사회적 안녕감으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긍·부정적 인식은 사회비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건 부정적으로 인식하건 모두 한국 사회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국 사회의 '갈등'이 주요 문제라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현재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점을 과거 한국 사회나 개발도상국과 같이 하향비교를 한 경우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선진국과 상향 비교를 한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는 현재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과 유사비교를 한 경우, 한국 사회에 대해 보다 중립적으로 인식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속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다수 사회적 연결감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특별했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였으나, 그 연결감이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향후 사회적 연결감 개인의 외로움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연결감 증진 방안에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연결감이 일상에서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경험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이 증가하는 개인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적 연결감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역사회, 직장, 그리고 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지역 축제, 자원봉사 활동, 동호회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에서 형성된 연결감을 오프라인 모임으로 확장하여, 현실에서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직장 내 네트워킹, 교육 프로그램, 정책적 지원 등의 방안을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일상생활 속 주요 사회정체성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세대에 따라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을 느끼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발달적 측면이 사회정체성 구성에 중요하며 연령에 따른 발달변화는 사회정체성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의미한다(Rathbone et al., 2008). 사회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이동수 외, 2007; 이명진, 2005; Bowe et al., 2020).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별 사회정체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세대에 따라 주요 사회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은 발달적 측면이 사회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발달적 변화는 사회정체성의 변화를 불러온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향으로 인해 같은 사회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Tajfel, 1970; Lindeman, 1997). 그러므로 한국인으로서 사회정체성이 활성화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과 사회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정체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에 동일시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사회정체성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방안은 이와 같다. 첫째, 역사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스포츠나 국가적 이벤트를 활용하여 국민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학교 및 직장 내 공동체 의식 교육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한다. 넷째, K-POP,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에서 한국인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와의 교류 강화 및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인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개입의 구체적인 조건을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비교의 기준점을 통해 사회적 안녕감을 탐색함으로써 동일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비교 기준점에 따라 사회적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한국 사회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가 잘해 나가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한국 사회의 문제들도 미래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본 연구의 FGI를 통해 개인의 사회비교 기준점이 무엇이나에 따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비교 기준점은 단순한 심리적 조작과 처치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되는 사고의 기준이다(서경현 외 2011; 한덕웅, 장은영, 2003a; Wills, 1981; Aspinwall & Taylor, 1993). 이는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비교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감에 대한 사고의 방향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사회적 연결감에 관해 설명했으나, 일부 참여자가 구체적인 사회적 연결감 경험을 떠올리기 어려워하자, 예시를 제공하여 사고를 활성화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참여자들의 사고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여, 다양한 사회적 연결감의 경험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구는 사회적 연결감과 한국인정체성의 사회문화적 맥락 탐색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현재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현재 경험보다는 과거의 사회적 연결감과 한국인정체성을 회고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안녕감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웠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회적 연결감과 사회정체성의 사회문화적 맥락 중 어떤 맥락과 조건이 사회적 안녕감을 증진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석만 (1996). 자기개념의 인지적 구조와 측정도구의 개발: 서울대학생 표집의 자기개념 특성.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31(1), 11-38.
- 김은아 (2016). 마을만들기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박경순, 박영란, 손덕순 (2020). 사회적 연결감과 우울의 관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667-677.
<https://doi.org/10.5392/JKCA.2020.20.02.667>
- 서경현, 이경순 (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비교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327-343.
<https://doi.org/10.17315/kjhp.2010.15.2.010>
- 송소현, 장윤경, 김주형 (2009). 대학생의 통제감, 사회비교추구성향 및 자기효능감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간호학회지*, 23(1), 27-39.
- 이동수, 이유리, 이소영, 성태훈 (2007).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명진 (2005). 한국 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 정체성. 삼성경제연구소.
- 이수지 (2021). 임상경력 2년 미만 간호사의 사회정체성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주관적 안녕감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승민, 양은주 (2015). 재문화충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지지체계와 문화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45-66.
- 이재열, 박상희 (2017). 사회적 안녕감 개념의 이론적 재구성. *보건과 사회과학*, 44(1), 5-43. <https://doi.org/10.15709/hswr.2017.44.4.5>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3), 201-219.
- 정태연 (2010).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53-76.
<https://doi.org/10.21193/kjspp.2010.24.3.004>
- 통계청 (2023). 2023 한국의 사회지표.
<http://www.index.go.kr>
- 한덕웅, 장은영 (2003a). 사회비교가 분노경험, 주관적 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85-112.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059648>
- 한덕웅, 장은영 (2003b). 사회비교 동기와 강요된 사회비교가 주관적 안녕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19-644.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111947>
- Abrams, D., & Hogg, M. A. (1990). Social Identification, Self-Categorization and Social Influence.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1), 195-228.
<https://doi.org/10.1080/14792779108401862>
- Anheier, H. K. (2020). Cultures, Values, and Identities: What Are the Issues?. *Global Perspectives*, 1(1), 11755-11762.
<https://doi.org/10.1525/001c.11755>
- Arslan, G., Yildirim, M., Karatas, Z., Kabasakal, Z., & Kilinc, M. (2020). Meaningful living to promote complete mental health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he context of the

-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20, 930-942.
<https://doi.org/10.1007/s11469-020-00416-8>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3).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direction, threat, and self-esteem on affect, self-evaluation, and expected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08-722.
<https://doi.org/10.1037/0022-3514.64.5.708>
- Berkman, L. F., Glass, T., Brissette, I., & Seeman, T. E. (2000). From social integration to health: Durkheim in the new millennium. *Social Science & Medicine*, 51(6), 843-857.
[https://doi.org/10.1016/S0277-9536\(00\)00065-4](https://doi.org/10.1016/S0277-9536(00)00065-4)
- Bowe, M., Gray, D., Stevenson, C., McNamara, N., Wakefield, J. R. H., Kellezi, B., Wilson, I., Cleveland, M., Mair, E., Halder, M., & Costa, S. (2020). A social cure in the community: A mixed-method exploration of the role of social identity in the experiences and well-being of community volunte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7), 1523-1539. <https://doi.org/10.1002/ejsp.2706>
- Buunk, A. P., & Gibbons, F. X. (2007). Social Comparison: The End of a Theory and the Emergence of a Field.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2(1), 3-21.
<https://doi.org/10.1016/j.obhdp.2006.09.007>
- Branscombe, N. R., Schmitt, M. T., & Harvey, R. D. (1999). Perceiving pervasive discrimination among African Americans: Implications for group identificatio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1), 135-149.
<https://doi.org/10.1037/0022-3514.77.1.135>
- Brassai, L., Piko, B. F., & Steger, M. F. (2013). Individual and parental factors related to meaning in life among Hungarian minority adolescents from Rom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3), 308-315.
<https://doi.org/10.1080/00207594.2011.645483>
- Brodsky, A. E., O'Campo, P. J., & Aronson, R. E. (1999). PSOC in community context: Multi-level correlates of a measure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low-income, urban neighborhood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659-679.
[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911\)27:6<659::AID-JCOP3>3.0.CO;2-%23](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911)27:6<659::AID-JCOP3>3.0.CO;2-%23)
- Buunk, B. P., & Gibbons, F. X. (1997). *Health, coping, and well-being: Perspectives from social comparison theory*. NJ: Erlbaum.
- Carlson Jones, D. (2004). Body Image Among Adolescent Girls and Boy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823-835.
<https://doi.org/10.1037/0012-1649.40.5.823>
- Chan, K., & Prendergast, G. (2007). Materialism and social comparison among adolesc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5(2), 213-228.
<https://doi.org/10.2224/sbp.2007.35.2.213>
- Cicognani, E., Pirini, C., Keyes, C., Joshanloo, M., Rostami, R., & Nosratabadi, M. (2008). Social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well being: A study on American, Italian and Iranian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 97-112.
<https://doi.org/10.1007/s11205-007-9222-3>
- Clay, D., Vignoles, V. L., & Dittmar, H. (2005). Body image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 girls: Testing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 facto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4), 451-477.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5.00107.x>
- Cohen, S. (2004).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9(8), 676-684.
<https://doi.org/10.1037/0003-066X.59.8.676>
- Cohen, S., & Syme, S. L.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Massachusetts: Academic Press.
- Cruwys, T., South, E. I., Greenaway, K. H., & Haslam, S. A. (2015). Social identity reduces depression by fostering positive attribution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 65-74.
<https://doi.org/10.1177/1948550614543309>
- Davidson, W. B., & Cotter, P. R.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 first loo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3), 246-253.
[https://doi.org/10.1002/1520-6629\(199107\)19:3<246::AID-JCOP2290190308>3.0.CO;2-L](https://doi.org/10.1002/1520-6629(199107)19:3<246::AID-JCOP2290190308>3.0.CO;2-L)
- Derviş, K., & Chandy, L. (2016). *Are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destined to drive up inequali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research/are-technology-and-globalization-destined-to-drive-up-inequality/>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https://doi.org/10.1037/0033-2909.125.2.276>
- Eisenberg, M. E., & Resnick, M. D. (2006). Suicidality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9(5), 662-668.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06.04.024>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 (1999). Self-categoris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s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2-3), 371-389.
[https://doi.org/10.1002/\(SICI\)1099-0992\(199903/05\)29:2/3<371::AID-EJSP932>3.0.CO;2-U](https://doi.org/10.1002/(SICI)1099-0992(199903/05)29:2/3<371::AID-EJSP932>3.0.CO;2-U)
- Feinstein, B. A., Hershenberg, R., Bhatia, V., Latack, J. A., Meuwly, N., & Davila, J. (2013). Negative social comparison on Facebook and depressive symptoms: Rumination as a mechanism.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2(3), 161-170.
<https://doi.org/10.1037/a0033111>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https://doi.org/10.1177/001872675400700202>
- Genç, E., & Arslan, G. (2021). Optimism and dispositional hope to promote college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Positive School Psychology*, 5(2), 87-96.
<https://doi.org/10.47602/jpsp.v5i2.255>
- Gilleard, C. (2022). Old age as a new class or an outdated social category? Objective and symbolic representations of later life. *Ageing and Society*, 42(7), 1499-1512.
<https://doi.org/10.1017/S0144686X20001579>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역). 서울: 현문사. (원

- 전은 1985년 출판)
- Goffman, E. (1964). The neglected situ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66(6), 133-136.
<http://www.jstor.org/stable/668167>
- Gray, D., & Stevenson, C. (2020). How can 'we' help? Exploring the role of shared social identity in the experiences and benefits of volunteering.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30(4), 341-353.
<https://doi.org/10.1002/casp.2448>
- Haferkamp, N., & Krämer, N. C. (2011). Social comparison 2.0: Examining the effects of online profiles on social-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5), 309-314.
<https://doi.org/10.1089/cyber.2010.0120>
- Haslam, S. A., Jetten, J., Postmes, T., & Haslam, C. (2009). Social identity, health and well-being: An emerging agenda for applied psychology. *Applied Psychology*, 58(1), 1-23.
<https://doi.org/10.1111/j.1464-0597.2008.00379.x>
- Haslam, S. A., McMahon, C., Cruwys, T., Haslam, C., Jetten, J., & Steffens, N. K. (2018). Social cure, what social cure? The propensity to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social factors for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198, 14-21.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7.12.020>
- Haslam, S. A., & Reicher, S. (2006). Stressing the group: social identity and the unfolding dynamics of responses to str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5), 1037-1052.
<https://doi.org/10.1037/0021-9010.91.5.1037>
- Holt-Lunstad, J., Smith, T. B., & Layton, J. B. (2010). Social relationships and mortality risk: a meta-analytic review. *PLoS medicine*, 7(7), e1000316.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316>
- Hopkins, N., Reicher, S. D., Khan, S. S., Tewari, S., Srinivasan, N., & Stevenson, C. (2016). Explaining effervescence: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social identity and positive experience in crowds. *Cognition and Emotion*, 30(1), 20-32.
<https://doi.org/10.1080/02699931.2015.1015969>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4865), 540-545.
<https://doi.org/10.1126/science.3399889>
- Humphrey, A., March, E., Lavender, A. P., Miller, K. J., Alvarenga, M., & Mesagno, C. (2022). Buffering the fear of COVID-19: Social connectednes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OVID-19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havioral Sciences*, 12(3), 86-93.
<https://doi.org/10.3390/bs12030086>
- Irons, C., & Gilbert, P. (2005). Evolved mechanisms in adolescent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The role of the attachment and social rank systems. *Journal of Adolescence*, 28(3), 325-341.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04.07.004>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 2)*. NY: Henry Holt and Company.
- Jang, H., Kim, E. J., & Reeve, J. (2016). Why students become more engaged or more disengaged during the semester: A self-determination theory dual-process model.

- Learning and Instruction*, 43, 27-38.
<https://doi.org/10.1016/j.learninstruc.2016.01.002>
- Jetten, J., Haslam, C., Haslam, S. A., Dingle, G., & Jones, J. M. (2014). How groups affect our health and well-being: The path from theory to policy.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8(1), 103-130. <https://doi.org/10.1111/sipr.12003>
- Jones, M. H., & Cooke, T. J. (2021). Social status and wanting popularity: different relationships with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4, 1281-1303. <https://doi.org/10.1007/s11218-021-09653-8>
- Joshanloo, M., Nosratabadi, M., & Rostami, R. (2006). Examin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ey's comprehensive scale of well-being.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9, 35-51. https://jip.stb.iau.ir/article_512411_en.html?lang=en
- Kalpidou, M., Costin, D., & Morris, J.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Facebook and the well-being of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4), 183-189. <https://doi.org/10.1089/cyber.2010.0061>
- Kaminski, J. W., Puddy, R. W., Hall, D. M., Cashman, S. Y., Crosby, A. E., & Ortega, L. A. (2010). The relative influence of different domains of social connectedness on self-directed violence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460-473. <https://doi.org/10.1007/s10964-009-9472-2>
- Kang, W. C., Lee, J. S. & Song, B. K. (2020). Envy and Pride: How Economic Inequality Deepens Happiness Inequality in South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0(2), 617-637. <https://doi.org/10.1007/s11205-020-02339-2>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121-140. <https://doi.org/10.2307/2787065>
- Keyes, C. L. M., Yao, J., Hybels C. F., Milstein, G., Proeschold-Bell, R. J. (2020). Are changes in positive mental health associated with increased likelihood of depression over a two year period? A test of the mental health promotion and protection hypothes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0, 136-142. <https://doi-org.proxy.cau.ac.kr/10.1016/j.jad.2020.03.056>
- Kiuru, N., Wang, M. T., Salmela-Aro, K., Kannas, L., Ahonen, T., & Hirvonen, R. (2020). Associations betwee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chool well-being, and academic achievement during educational transi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9(5), 1057-1072. <https://doi.org/10.1007/s10964-019-01184-y>
-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32-241. <https://doi.org/10.1037/0022-0167.42.2.232>
- Lee, R. M., & Robbins, S. B.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anxiety, self-esteem, and social identity [Editori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38-345. <https://doi.org/10.1037/0022-0167.45.3.338>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Publication.
- Lindeman, M. (1997). Ingroup bias, self-enhancement and group identific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3), 337-355. [https://doi.org/10.1002/\(SICI\)1099-0992\(199705\)27:3<337::AID-EJSP825>3.0.CO;2-S](https://doi.org/10.1002/(SICI)1099-0992(199705)27:3<337::AID-EJSP825>3.0.CO;2-S)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363-385. <https://doi.org/10.1146/annurev.soc.27.1.363>
- Magu S. (2015). Reconceptualizing Cultural Globalization: Connecting the “Cultural Global” and the “Cultural Local”. *Social Sciences, 4*(3), 630-645. <https://doi.org/10.3390/socsci4030630>
- Malone, G. P., Pillow, D. R., and Osman, A. (2012). The General Belongingness Scale (GBS): assessing achieved belonging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3), 311-316. <https://doi.org/10.1016/j.paid.2011.10.027>
- Melita, D., Willis, G. B., & Rodríguez-Bailón, R. (2021). Economic inequality increases status anxiety through perceived contextual competitiveness. *Frontiers in Psychology, 12*, Article 637365. <https://doi.org/10.3389/fpsyg.2021.637365>
- Miles, Matthew B., & Huberman, A. Michael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Nesi, J., & Prinstein, M. J. (2015). Using social media for social comparison and feedback-seeking: Gender and popularity moderate associ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 1427-1438. <https://doi.org/10.1007/s10802-015-0020-0>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3). *Better Life Index*.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 O'Rourke, H. M., & Sidani, S. (2017). Definition, Determinants, and Outcomes of Social Connectedness for Older Adults: A Scoping Review.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43*(7), 43-52. <https://doi.org/10.3928/00989134-20170223-03>
- Oyanedel, J. C., & Páez, D. (2020). Social belongingness and wellbeing: a review of constructs and evidence a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Frontiers in Psychology Social Psychology issue. *Front Psychology*, Preprint. <https://doi.org/10.31234/osf.io/64vx2>
- Postmes, T., & Branscombe, N. R. (2002). Influence of long-term racial environmental composition on subjective well-being in African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735-751. <https://doi.org/10.1037/0022-3514.83.3.735>
- Pretty, G. M., Conroy, C., Dugay, J., Fowler, K., & Williams, D. (1996).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evance to adolescents of all ag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365-379. [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610\)24:4<365::AID-JCOP6>3.0.CO;2-T](https://doi.org/10.1002/(SICI)1520-6629(199610)24:4<365::AID-JCOP6>3.0.CO;2-T)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 Schuster.
- Rathbone, C. J., Moulin, C. J. A., & Conway, M. A. (2008). Self-centered memories: The reminiscence bump and the self. *Memory &*

- Cognition*, 36(8), 1403-1414.
<https://doi.org/10.3758/MC.36.8.1403>
- Rosenthal, D. A., Russell, J., & Thomson, G. (2008). The health and wellbeing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an Australian university. *Higher Education*, 55, 51-67.
<https://doi.org/10.1007/s10734-006-9037-1>
- Ruggieri, S., Ingoglia, S., Bonfanti, R. C., & Coco, G. L. (2021). The role of online social comparison as a protective factor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during the COVID-19 quarantin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1, 110486.
<https://doi.org/10.1016/j.paid.2020.11048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Ryff, C. D., & Singer, B. H. (2008). Know thyself and become what you are: A eudaimonic approach t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1), 13-39.
<https://doi.org/10.1007/s10902-006-9019-0>
- Sani, F., Madhok, V., Norbury, M., Dugard, P., & Wakefield, J. R. (2015). Greater number of group identifications is associated with healthier behaviour: Evidence from a Scottish community sampl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3), 466-481.
<https://doi.org/10.1111/bjhp.12119>
- Smolak, L., & Stein, J. A. (2006). The relationship of drive for muscularity to sociocultural factors, self-esteem, physical attributes gender role, and social comparison in middle school boys. *Body image*, 3(2), 121-129.
<https://doi.org/10.1016/j.bodyim.2006.03.002>
- Stanley, I. H., Hom, M. A., Chu, C., Dougherty, S. P., Gallyer, A. J., Spencer-Thomas, S., Shelef, L., Fruchter, E., Comtois, K. A., Gutierrez, P. M., Sachs-Ericsson, N. J., & Joiner, T. E. (2019). Perceptions of belongingness and social support attenuate PTSD symptom severity among firefighters: A multistudy investigation. *Psychological Services*, 18(4), 543-555.
<https://doi.org/10.1037/ser0000240>
- Steers, M. L. N., Wickham, R. E., & Acitelli, L. K. (2014). Seeing everyone else's highlight reels: How Facebook usage is linked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3(8), 701-731.
<https://doi.org/10.1521/jscp.2014.33.8.701>
- Suls, J., Martin, R., & Wheeler, L. (2002). Social comparison: why, with whom, and with what Effec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5), 159-163.
<https://doi.org/10.1111/1467-8721.00191>
- Tajfel, H. E. (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5), 96-103. <http://www.jstor.org/stable/24927662>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eepe, G. W., Glase, E. M., & Reips, U. D. (2023). Increasing digitalization is associated with anxiety and depression: A Google Ngram analysis. *PLOS ONE*, 18(4), e0284091.

-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84091>
Vogel, E. A., Rose, J. P., Okdie, B. M., Eckles, K., & Franz, B. (2015). Who compares and despairs? The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social media use and its outcom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249-256.
<https://doi.org/10.1016/j.paid.2015.06.026>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232-242.
<https://doi.org/10.1177/0146167204271326>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2), 245-271.
<https://doi.org/10.1037/0033-2909.90.2.245>
- Wood, J. V., Giordano-Beech, M., Taylor, K. L., Michela, J. L., & Gaus, V. (1994). Strategies of social comparison among people with low self-esteem: Self-protection and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13-731.
<https://doi.org/10.1037/0022-3514.67.4.713>
- Yuen, E. Y., Wilson, C., Livingston, P. M., White, V., McLeod, V., Dufton, P. H., & Hutchinson, A. M. (2023). Caregiver and care recipient health literacy, social support and connectedness on caregiver psychological morbidity: A cross-sectional dyad survey. *Psycho-Oncology, 32*(8), 1257-1267.
<https://doi.org/10.1002/pon.6177>

논문 투고일 : 2024. 07. 10

1 차 심사일 : 2024. 09. 27

게재 확정일 : 2024. 10. 30

A Qualitative Study on the Social Well-being of Koreans: Focusing on Social Connectedness,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Yei-ji Seo Jungmin Ahn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ociocultural context and condition of social connectedness,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criteria that affect social well-being. Additionally, it examined qualitatively how people's social well-being is affected by the social comparison standards of the Korean society. For this, the FGI methodology was utilized. Adults in their 20s to 60s made up five age-based focus groups, each with seven participants, for a total of 35 people. Afterward, the data were coded by themes, and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patterns and draw conclusions. The following are the primary conclusions: First, social connection was experienced through things like other people's unwavering kindness, events evoking national solidarity,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the exercise of civic rights like voting. Second, people's primary social identities in daily life ar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material self, social self, and psychological self, while social identity as a Korean is reinforced by international contexts. In particular, the sociocultural contexts of experiencing the Korean identity were identified as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other foreig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eeling like an outsider in a strange setting, and feeling more engaged by national prestige events and sporting events. Third, perceptions of the Korean society through social comparison varied depending on the standard of comparison. Upward comparisons caused feelings of tension and frustration, while downward comparisons offered some relative comfort. The study's findings have important ramifications since they can serve as a basis for advancing social well-being. The study specifically showed a tendency for less frequent experiences of social connectedness. Thus, it implies that in order to make this connectedness a regular occurrence rather than a phenomenon reserved for special occasions, psychosocial and cultural interventions are required. Furthermore, by highlighting the sociocultural contexts in which Korean identity is experienced and the ways in which important social identities vary across genera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tailored methods for each generation to reinforce Korean identity. Last but not least, the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taking into account the beneficial role of downward comparison in preserving balanced social views and fostering social well-being in Korean culture, where upward social comparison is comm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NS.

Key words : social connectedness, social identity, Korean identity, social comparison, social well-being